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아름다운 혜자정원 (Moat Garden)은 1천년 전 정복왕으로 불리는 윌리엄 왕이 방어를 목적으로 색슨노동자들을 동원해 요새 주위에 판 도랑에서 그 기원이 시작됩니다. 1066년 영국을 정복한 윌리엄 왕은 방어 목적으로 요새의 중심을 언덕 위에 세우고 그 주위에 도랑을 팠는데, 일반적인 도랑처럼 물로 채워지지 않은 이 도랑은 곧 잡초들로 덮히게 됩니다. 1319년의 기록에 의하면 5명의 여인들이 하루 1페니씩 지급받으며 채기일을 뽑았다고 전해지기도 하는데, 영국이 점차 안정되면서 잡초로 뒤덮였던 정원들이 점점 아름답게 가꾸어지기 시작했고, 여기의 혜자정원도 역사에 정식으로 오르게 됩니다.

젊은 시절 원저성에 부속되었던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1세는 서머셋 백작의 딸 조안 보프트가 혜자정원을 산책하는 모습을 자신의 시에 넘겨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사랑에 빠진 그는 원저성에서 석방되어 스코틀랜드로 돌아가기 전 그녀와 결혼함으로써 진정한 사랑의 걸출을 이루어 내기도 했습니다. 원형 타워 입구에 위치한 작은 여름별장 'herbere'에 그가 원저성에 머물렀던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오늘날 정원에는 최고위자들의 오래된 석상들과 괴물석상 그리고 기독교의 상징물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색슨 지역에서 유래한 가장 오래된 석상들 중의 일부는 16세기 헨리 8세 왕이 수도원을 해체시키면서 레딩수도원 (Reading Abbey)으로부터 험즈강을 통해 옮겨 내려온 것입니다. 남쪽에 있는 암석정원에서 에드워드 3세 타워주위를 둘러싼 가고일(괴물석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혜자정원은 노던타워에 거주하는 원저성의 경관 겸 총재의 개인정원입니다. 1360년에 세워진 노던타워는 1588년과 1748년에 두 차례 증축되었고 조지 4세 왕 집권 기간에 행해진 원저성 개조작업을 통해 와어엇빌 (Wyattville)에 의해 고딕양식으로 새롭게 변신되었습니다.

혜자정원은 20년 이상 노던타워에 거주한 에드워드 7세 왕의 제우담당인 다이턴 프로빈 (Dighton Probyn) 경에 의해 20세기 초 새롭게 디자인 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는 언덕에 테라스를 다시 세우고 산책로와 잔디밭을 만들었으며, 폭포수와 성 조지의 작은 암굴, 분수 테라스, 무화과나무 숲, 시인의 코너 (문인들의 묘와 기념비가 있음) 등 다양한 볼거리들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적갈색 바위를 샌드링엄 (Sandringham)으로부터 수입하기도 했는데, 그가 만들었던 아치형 진입로나 라벤더 산책로 등은 사라졌지만 그가 설계했던 기본 레이아웃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최근 들어 1993년에 원형타워 작업을 위해 사용되었던 크레인 기지를 커버하기 위한 백합 언덕이 조성되었고, 1994년에는 다이턴 프로빈의 원형 설계중의 일부로 원형타워에 들어있는 피난처 중의 하나가 복구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원저성을 다스려온 모든 총재들이 혜자정원의 개발에 기여하면서 정원은 오늘날과 같은 아름다운 광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혜자정원 개발로부터 얻어지는 모든 수익금은 원저 지역의 자선단체와 청소년 단체에 기부됩니다.